

제놀루션, “2021 AACC 참가 성황리에 마무리”

- ▶ 제놀루션 2021 AACC서 NGS 기반 코로나 변이 솔루션 선보여
- ▶ 분자진단 신제품 및 신기술 소개를 통한 미국시장 확대 모색
- ▶ 전자동 대형 분자진단 검사 시스템 완성 후 향후 매출액 확대 기대

<2021-10-06>제놀루션이 2021 AACC에 참가해 미국시장 확대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제놀루션(225220, 김기옥 대표이사)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2021 미국임상화학회 국제학술대회·박람회(2021 AACC)’에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

2021 AACC은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진단검사 분야 학술대회이자 박람회다. 제놀루션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장 전시 참가에 나서며 글로벌 수준의 분자진단 장비와 신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실제로, 제놀루션은 이번 박람회에서 ▲기존 분자진단 장비들 ▲신규 대형전자동 장비 및 NGS 기술 기반의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솔루션 ▲HPV NGS Kit, NGS Library Prep 장비와 액체생검 관련 장비와 기술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전시기간 동안 기존 부스 대비 대형 규모의 독립 부스를 설치해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며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했다”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존의 미국 판매망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각국의 바이어들에게 제놀루션을 소개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소개된 NGS 기반 변이 바이러스 솔루션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해결책이다. 회사는 이와 연관된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빠른 시일 내 제품을 완성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김기옥 대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진단 분야 학회인 2021 AACC에서 당사의 신제품과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어서 기뻐다”라며 “제놀루션은 이미 핵산추출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인정받은 제품들을 전 세계 50여 개국 대리점들과 거래 중이며, 향후에도 글로벌의료기기 박람회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글로벌 체외진단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놀루션은 지난달 3분기 배당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통해 코스닥 상장 후 첫 분기배당을 예고했다.



[사진첨부] 2021 AACC 참가 사진

